EOTS 7(2011) 65-95

구약 역사서를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김은호
한국성서대학교

I. 들어가는 말

본 소고의 목적은 구약 역사서를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라는 방법론 보다 "무엇을 설교 할 것인가"라는 내용을 소개하는데 있다. 이 목적을 위해 필자는 설교 자체보다는 설교자가 구약 역사서를 설교하기 위한 이해를 돕고자한다. 설교의 목적은 청중에게 텍스트를 선포함으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설교자는 설교 방법과 기술을 습득하기 전에 텍스트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한다. 설교는 현 시대 사조에 함몰되어 회중의 요구에 영합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충실하게 전달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어야한다.[1]

오늘날 강단의 화두는 다양하다. 일부 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설교가 성경의 문학적 장르에 좀 더 부합한 방법론인가에 고민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일부는

1 Perkins, W. *The Art of Prrophesying & The Calling of Ministry*, 채천석 역,『설교의 소명과 목사의 소명』(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6), 20-25, 38; 피는 구약이 성경의 3/4을 차지한다고 한다. Gorden Fee and Douglas Stuart, *How to read the Bible for all its worth: a guide to understanding the Bible* (Grand Rapids: Zondervan, 1993), 78.

청중에게 들리는 설교에 관심을 갖기도 한다. 또 어떤 이들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이자 구원 역사를 제시하는 성경의 메시지를 어떻게 가감 없이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기도 한다. 이런 다양한 관심사를 고려하고 있는 스티븐 메튜슨[2]은 설교가 성경의 본질, 즉 이 땅에서 자신의 구원을 이뤄가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증언하고 있는 성경의 역할에 코드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설교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라고 한다. 그 선포는 '케리그마' 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중심으로 설교할 때 그 인물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설교해야 한다. 이렇지 못한 경우 설교는 하나님을 선포해야 하는 것에서 벗어나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되기 쉽다.

2. 구약 역사의 해석

이와 마찬가지로 구약 역사서가 설교의 본문으로 사용될 때 본문이 안고 있는 역사적 특징을 살리지 못한다면 밋밋한 역사의 교훈이나 도덕적 설교가 되고 말 것이다. 구약에서 역사적 본문이 차지한 분량이 40%인데 이는 구약 전체의 1/3을 차지하고도 넘는다.[3] 구약의 역사서를 설교하기란 쉽지 않은 것으로 손꼽는다. 구약 역사서가 가진 방대한 내용뿐 아니라 복잡한 구조, 히브리

---

2 Steven D. Mathewson, *The Art of Preaching Old Testament Narrative*, 이승진 옮김,『청중을 사로잡는 구약의 내러티브 설교』(서울:CLC, 2004); 죠지 코오트는 성경의 나타나는 내러티브를 넓게 보아 세 그룹으로 구별해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 첫 번째 그룹으로 원인과 결과라는 도식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순서대로 기술하는 내러티브와 두 번째로는 말하는 사람이 특정한 관점에서 사건들을 묘사하는 내러티브, 즉 사건을 전달한다는 점에서는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지만 이야기가 일정한 플롯에 맞춰서 서술되고 있다는 점이서는 위의 두 그룹과는 다르다. 세 번째 내러티브는 사건을 서술하는데 초점을 두었던 위의 두 그룹과는 달리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전달하는 내러티브이다. 여기서는 해설자의 관심이 사건보다는 어떤 인물, 위인에 대한 묘사에 더 비중을 둔다. 왕대일,『새로운 구약주석』(서울: 성경연구사, 1996), 238.

3 김창훈, "구약의 역사서(역사적 본문, 히브리 내러티브), 어떻게 설교 할 것인가?",『복음과 실천신학 제 20권』(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2009), 317.

어에 대한 이해, 구약의 장르에 대한 이해 또한 방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약 역사서를 현대인에게 설교하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는 본문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원리 적용을 시도하는 것이 용이 하지 않다. 그것은 성경 본문과 현대의 독자 사이에 본문의 역사만큼이나 시공간적으로 격차가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하여 해결 하려는 시도가 지금까지 다양한 설명이 있어 왔지만 정확한 해석을 위한 시대적 및 상황적 간격을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4] 설교를 위한 대부분의 예시들은 단편적이거나 지나치게 전문적이어서 성경본문이 갖고 있는 언어적, 문화적, 인종적, 경제 사회적으로 충분히 접하지 못한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서는 교훈을 위한 예화로 전락되어진 경우들이 많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본문에 대한 상황을 먼저 철저히 이해하는 데서 시작해야한다. 그것은 성경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파악하는 일이며, 가능한한 모든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인 자료를 동원하여 성경본문이 수집되고 기록되었던 당시의 정황을 객관적으로 연구 분석함으로 그 성경본문이 처한 원래적인 삶의 자리(Sitz im Leben)를 찾아내는 일이다. 곧 구약 본문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본문의 시대적 문맥을 먼저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보편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지극히 타당한 접근법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역사란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기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사는 문학과 거리가 있다고 본다. 구약의 역사서

---

4 Sidney Greidanus, *Preaching Christ from the Old Testament* (Wm. B. Eerdmans Publishing Co.: Grand Rapids, 1999), 15-18, 22-25. 그레이다우스는 구약설교의 어려움을 역사, 신학, 윤리, 실천적용 네 가지를 말하고 있다.

도 이러한 이유로 읽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시대적 산물인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문학적 영역 때문에 역사서는 마치 등장인물과 구성을 완벽하게 갖춘 이야기처럼 읽힌다. 사실 인간의 역사로 기록 된 모든 이야기는 사건을 토대로 기록된 이야기 전개 방식을 통해 의미를 전달한다. 우리는 이런 서술 방식을 내러티브(narrative)라고 한다. 구약 역사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러티브의 기능과 역할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내러티브 문학이 갖는 해석학적 원리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5] 내러티브적 접근은 문학의 기본적 요소인 배경, 인물, 구성 및 구조 분석을 바탕으로 본문의 원래 의미를 파악한다. 따라서 본문에서 찾아낸 신학적 원리들을 오늘날 신앙 공동체의 상황에 맞게 현대적 적용을 설교의 장으로 내 놓는 것이라 하겠다.[6]

우리가 설교자로서 본문을 청중에게 전달하려 할 때 피할 수 없이 직면하게

---

5 김지찬, "역사서를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그 말씀』, 1997년 4월호 (서울: 두란노), 40-41; "내러티브와 구약학: 자서전적 내러티브", 『말씀목회 내러티브 학술회의 자료집』(서울: 서사목회 연구회, 말씀목회 공동체 편, 2005); 성경의 내러티브 역시 문학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내러티브란 실제적이거나 가공의 사건들에 대한 시나 산문 형식의 글로 넓게 정의할 수도 있으며 구성에는 등장인물(characters), 배경(background), 플롯(plot)을 가지고 있다. 내러이트를 관점(point of view)이 있는 스토리라고도 한다. Richards L. Pratt, Jr. *He Gave Us Stories: The Bible Student's Guide to Interpreting Old Testament Narratives*, 이승진 공역 『구약의 내러티브 해석』(서울: CLC, 2007) 2부에서는 내러티브 장르의 문학적 특징을 따라 설교문을 작성하고 전달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들을 단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또 3부 13장의 "이야기꾼이 갖추어야 할 자질들"을 담고 있어서 설교자들에게 사례로 설교문을 소개하고 있다.

6 Tremper Longman III, 『문학적 성경해석』, 유은식 역 (서울: 솔로몬, 2002), 75-94. 트렘퍼 롱맨 3세는 문학적 성경해석과 인문학적 문학해석 사이의 차별성을 두면서, 문학적 성경해석은 제한된 문학방법론에 국한되지 않으며, 오히려 절충적인 방법을 취한다. 또 난해한 문학이론 없이도 충분히 본문을 설명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서구 문학에서 비평이 아니라, '에믹(emic)' - '에틱(etic)' 과 같은 문화적 결정인자들을 고려한다. 그리고 저자를 완전하게 배제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본문에 관심을 둔다. 마지막 역사와 관련하여, 문학의 지시적 기능을 부인하지 않고, 시적 기능과 지시적 기능 사이의 위치를 지지한다. 이렇게 문학적 성경해석이 인문학적 문학해석과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 대상의 성격에 있다고 하겠는데, 방법론을 그 자체로 목적으로 두지 않고 오히려 수단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되는 것이 본문이 안고 있는 "상황"(Context)이다. 텍스트는 콘텍스트에서 만들어진다. 성경 본문이 특정한 시간 속에서 기록된 역사적 기록물이기에 역사적으로 연구를 해야 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 절대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은 성경 본문이 공동체 혹은 개인의 신앙이 표현된 책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학문의 대상이전에 신앙의 고백임인 동시에 교회의 캐논이라고 할 수 있다. 목회자의 설교는 텍스트에서 만들어진다. 따라서 설교의 출발점은 '텍스트 읽기' 이다. 그러나 종종 텍스트는 읽을 때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콘텍스트의 사전적 의미가 '문맥' 으로 문장의 '전후 관계' 를 표현하는 단어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맥락' 이라고도 한다.

다시 말해서 본문은 그 상황 곧 그 본문이 전하려는 사건의 역사적 배경 가운데서 발생한다. 아울러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본문은 불가능하고 본문과 상황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설교자와 독자는 사건과 상황 사이에 기록된 본문의 의미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콘텍스트가 곧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과 문제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답과 해결책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의 텍스트를 만들어 낸다. 이렇게 텍스트를 생산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전수된 옛 것들을 참고하게 되어 있다. 콘텍스트가 전혀 없이 만들어진 텍스트는 학문적으로 무의미하다. 본문은 반드시 콘텍스트와 함께 이해해야지 서로 분리될 수 없다. 해석과 설교는 Text와 Context의 문제이다. 콘텍스트는 다시 본문이 놓여 있는 문맥, 구조, 혹은 그 책 전체와 독자들의 사회, 역사적 삶의 자리로 나누어 생각한다.

3. 구약 역사의 숲에서 두 길을 만나다

구약 역사서는 개신교 정경의 순서에 따라 여호수아서에서 에스더까지를

일컫는 명칭이다. 이 책들이 담고 있는 내용이 역대기에서는 아담으로부터 유대인들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 벌인 에스더의 민족운동에 이르기까지이며, 시간으로는 창조 때부터 주전 5세기 경 까지 이다. 따라서 역사서의 내용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세상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기록한 역사이다. 특히 역사에 담긴 이스라엘의 왕조 역사는 왕들의 통치 업적보다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이스라엘과 세상을 전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초자연적으로 역사에 개입하시거나 예언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전하려는 목적도 있다.

역사서에는 수많은 인물들과 사건이 나오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서의 유일하고 참된 주인공은 하나님 한 분 이시다. 이러한 맥락에서 역사서는 지상 왕국이나 왕조의 흥망성쇠를 정치적 군사적 차원에서 바라보지 않는다.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곧 여호와 신앙 안에서 바라보고 평가한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체험한 하나님의 구원역사, 즉 신앙의 역사를 전하는 개신교의 역사서는 모두 12권이다. 그 가운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유대인 경전에서는 전기 예언서라고 부른다. 이 책들의 내용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가 추방되기 까지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이다. 하지만 후기 예언서는 예언자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기록된 예언자들의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서 추방된 후 외국에서 유리하다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 온 후 기록된 역사서는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가 있다. 이 역사서들은 후기 이스라엘의 역사이며 이를 역대기 역사라고도 부른다. 따라서 구약의 역사서는 두 그룹 전기 역사와 후기역사로 나누며 이를 신학적으로는 하나는 신명기적 역사이며, 다른 하나는 역대기 역사이다. 그러나 이 역사

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

1) 신명기 역사의 길

1943년 노트(M. Noth)는 전승사 연구에서 신명기적 역사(Deuteronomistic History)이라는 가설을 내놓았다. 그 이유는 신명기의 율법과 언어, 사상이 유사하고 교훈적인 말들도 유사한 점이다. 또 그에 따르면 주전 6세기 중엽에 한 신명기 사가가 신명기 법전을 토대로 이전의 구전 전승과 기록 전승들을 모아 시내산 계약에서 여호야긴의 해방에 이르는 이스라엘 역사를 저술하였다. 그렇게 저술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부르며 신명기는 이 역사서들의 서론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7]

그러나 노트의 이론에는 신명기적 역사의 복합성을 너무 단순하게 처리했다는 단점이 있다. 그는 단일 저자라고 생각했고 이 저자가 유배 중반에 여호와에 불충실하여 유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여러 역사의 단편들을 모아 일관된 흐름을 지닌 하나의 역사서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학자들은 역사서는 신명기 역사서가 단일 작품이 아니라 신명기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 저자에 의해 기록 된 작품이라고 보고 있다. 곧 신명기 내용을 따르는 저자들이 저술한 책으로 신명기 문학, 신학적 특징을 반영하는 작품이

---

7 M. Noth, English Translation *The Deuteronomistic History* (ed. D. J. A. Clines;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Supplement Series* 15; Sheffield: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Press, 1981) P. R. Ackroyd 에 의하면 Deuteromoic과 Deuteronomistic 이라는 학술 용어는 정확하게 개념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한다. P. R. Ackroyd, "The Historical Literature," in *The Hebrew Bible and Its Modern Interpreters*, ed. D. A. Knight and G. M. Tucker (California: Scholars Press, 1985), 300. 또 Deuteronomic History와 Deuteronomistic History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학자도 있다. T. E. Fretheim, *Deuteronomic History* (Nashville: Abingdon Press, 1983), 15.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신명기 역사를 Deuteronomistic History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R. Coggins, "What does 'Deuteronomistic' mean ?" in Words Remembered, Texts Renewed : *Essays in Honor of J. F. A. Sawyer, JSOT Supplement* Series 195 (Sheffield: JSOT Press, 1995), 135.

라고 여긴다.[8]

소위 신명기적 역사서라 일컫는 역사서는 언약 사상을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서술하였다(신 7:6, 14:2, 26:17-18). 따라서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주인이시며 하나님이시며 통치자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여호와만을 섬기고 사랑하며, 그분께서 주신 계명과 규정을 성실히 따름으로써 여호와께 변함없이 충실해야 했다(신 10:12, 11:1). 따라서 구약 역사서는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 그리고 특별히 택함을 받은 백성을 통해 이루어진 행위들을 기록한 책들이다.[9]

신명기적 역사서는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고수하기 위하여 종교혼합주의를 엄격히 배척한다. 이 때문에 우상숭배를 엄격히 금지하고 모든 예배를 예

---

8 폰 라드는 DH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작용했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다. 즉, 여호와의 말씀은 율법-심판-파괴라는 측면과 구원과 용서라는 다윗 언약 측면이 있다. 전자는 모세와 예언자들의 경고를 무시했던 자들에게 심판이 실제적인 것이었음을 말하며, 후자의 다윗에 대한 약속은 "메시야적 희망"으로 모든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러한 두 측면은 서로 융합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된 것이다. 이러한 폰 라드의 해석이 오늘날 전반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반면 볼프는 회개를 말한다(왕상 8:46-53). 다윗 언약이 순종을 근거로 한 조건적인 것이라고 보면서(왕상 2:3-4; 9:5-7), 왕들의 불순종 때문에 다윗 언약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해석했다(비교. 왕하 25:27-30에는 다윗 언약에 대한 암시가 없다). 이렇게 희망이 없으나 이스라엘의 회개에 하나님은 용서하실 것이다(왕상 8:34ff). 한편, 백성은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으며,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회개할 수 있다(신 4:29-31; 30:1-10; 왕상 8:58). 볼프는 언약에 대하여 충분한 강조를 주지 않았다. 그러나 다윗언약이 조건적이라는 견해가 좁아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어느 누구에게나 조건적이지 않았다고 한다(신 4:31; 삿 2:1; 삼상 12:22; 삼하 7:16). 상호 발전에 대한 논의는 M. Weinfeld, *Deuternomy and the Deuteronomistic School* (Oxord: Clarendon, 1972). 신명기 형성에 관한 비평적인 견해와 보수적 견해의 요약은 다음을 참조하라. R. K. Harriso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Wm. B. Eerdmans Publishing 1969), 637-53; Brevard Childs,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as Scripture* (Philadelphia: Fortress, 1979), 204-10.

9 J. Alberto Soggin, *Joshua*, OTL vol. 6 (London: SCM Press, 1982), 10-20.

루살렘 성전에 집중시켰다. 따라서 산당들을 폐쇄케 한다(신 12:2-14). 이것은 요시아의 종교개혁의 중심 과제이기도 했다. 요시아는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서(왕하 22:8)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한다. 요시야의 종교쇄신은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는 일로 시작한다(왕하 23:4). 요시야는 성전에 있었던 우상들을 모두 철거하고, 다른 지역의 산당들도 폐쇄한다. 그리고 레위 지파 제사장들만이 제사를 올릴 수 있도록 재규정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모든 제사의 합법적이고 유일한 장소로 내세운다(왕하 23:4-17). 신명기적 역사서는 요시야의 종교쇄신의 중심사상에 따라 사건과 인물들을 재평가한다. 이는 솔로몬의 통일 왕국의 분열 원인(왕상 11:1-13)이나 북부 왕국의 멸망 원인(왕하 17:7-12), 그리고 왕들의 평가에 잘 나타나 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과 예배를 중심으로 여호와 신앙을 고수한 아사(왕상 15:11-15), 히스기야(왕하 18:3-7), 요시야(왕하 14:22-23)는 그 조상 다윗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선한 왕으로 평가 되지만 그와 반대로 여로보암(왕상 12:28-33, 14:15-16), 르호보암(왕상 14:22-23), 아합(왕상 16:30-33)등은 악한 왕으로 평가 된다.

언약을 중심으로 한 철저한 여호와 신앙을 보존하는 삶, 곧 여호와께서 충실한 삶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영원한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 외에는 멸망에 이르는 길뿐이다(왕하 17:7-23). 신명기 역사 안에 나타나는 구원도식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의 범죄 - 하나님의 심판 - 백성들의 회개 - 하나님의 구원으로 네 가지 사상은 신명기 역사가의 역사관을 이룬다. 그리고 이 역사관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간섭하신다는 것을 보여 준다.

2) 역대기 역사의 길

현대 학자들은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를 단일 저자로 이루어진 작품으로 보고 있다. 이것을 역대기 역사서 또는 역대기 저자의 저술로 부른다.

실제로 이 작품들은 용어나 문장 구성 그리고 주요 주제로 다윗 왕조,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정체성, 성전, 예배 등에 공통점이 있다. 또한 역대기 하권의 끝 부분(대하 36:22-23)이 에스라 시작 부분(스 1:1-3)에서 반복 되는데 이는 두 책을 하나로 잇기 위한 문학적 방편으로 단일 저자에 의해 기록된 것임을 암시한다. 특히 마카비 하권(2:13)에서는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를 하나의 작품으로 소개하고 있다.[10]

그러나 단일 저자가 아닌 다수의 편집자를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역대기에는 다윗 왕조에 대한 희망이 강하게 드러난 반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서는 그런 희망을 찾아보기 힘들고 북부 이스라엘의 후손들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서로 다르며 예언자들에 대한 언급이 잦은 역대기와는 달리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서는 예언자들의 영향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점 등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대기 저자의 작품 내용과 인물들을 바탕으로 저술시대를 추정할 수 있다. 에스라는 아르닥사스 2세(주전 405-358년)치하에서 활약한 인물로 추정한다. 또한 느헤미야서 12:22절에 언급된 페르시아 다리우스 3세(주전 336-331년)일 수도 있다. 따라서 역대기 역사서의 작품들의 최종 시기를 주전 4세기 이전으로 잡는 것은 무리이다. 일반적으로 역대기 역사서의 작품들은 주전 350-300년 사이에 저술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신명기 역사서와 비교할 때 역대기 역사서는 네 권밖에 안 되지만 아담에서부터 주전 5세기에 이르는 방대한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다윗 이전의 조상들은 족보 형식으로 나열하였으며(대상 1:1-9:44) 실질적 역사 기

10 장일선, "역대기 사가의 신학적 경향", 『신학사상 제25집』(한국신학연구소, 1979), 301~325. 최종진, "역대기 저자의 신학", 『구약논단 제27집』(한국구약학회, 2008),138-158; 메이어는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가 사상과 언어, 신학에서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서 한 저자의 손에서 나왔다고 주장한다. Myers, Jacob M. *I Chronicles. Anchor Bible series* (Garden City, N.Y.: Doubleday and Co., 1965.), xviii.

록은 다윗에서부터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까지이다. 역대기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북부 왕조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다윗 왕조와 이스라엘 성전을 여호와께서 세워주신 유일하고 합법적인 왕조와 성전으로 여기는(대상 17:10-14, 대하 6:5-6) 역대기 저자의 신학사상 때문이라고 본다(대하 18:1-34에서처럼 남부 유다와 관련된 북부 이스라엘의 일부 사건들은 예외이다).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을 여호와 신앙을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로 보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중심 장소인 성전과 예배를 중요하게 다루었다. 성전 건축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계획된 것이며(대상 28:19), 그곳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대상22:7, 대하6:7-8)이다. 다윗과 솔로몬은 이 신앙 공동체의 주춧돌을 놓은 인물로 평가된다. 저자는 성전 건축과 예배에 관계된 이들의 활동을 강조하며(대상 22:1-26, 32: 28:1-29:9, 대하 2:1-7:10), 다윗 왕조는 성전과 예배를 바탕으로 한 신정 정치의 이상적인 본보기로 제시한다(대상 17:10-14, 대하 7:17). 이런 관점에서 성전 정화와 예배개혁을 통하여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쇄신한 왕들 곧 다윗과 솔로몬의 행적을 뒤따른 왕들, 아사(대하 15:1-19) 여호사밧(대하 17:4-6), 히스기야(대하 29:3-36, 31:1-21), 요시야(대하 34:1-7:33)를 높이 평가한다.

성전과 그곳에서 행해지는 예배로 이스라엘은 신앙공동체로 설 수 있게 되었다. 이 때문에 역대기 저자는 바벨론 유배이후 이스라엘 역사를 기술하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포함하여 정치적 의미에서 국가 재건이 아닌 예루살렘 성전과 예배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신앙 공동체 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에스라 3:1-13절은 역대기 저자가 성전과 예배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보여 준다. 곧 바벨론 유배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제단을 다시 쌓고 번제를 그렸다. 그리고 즉시 성전재건에 착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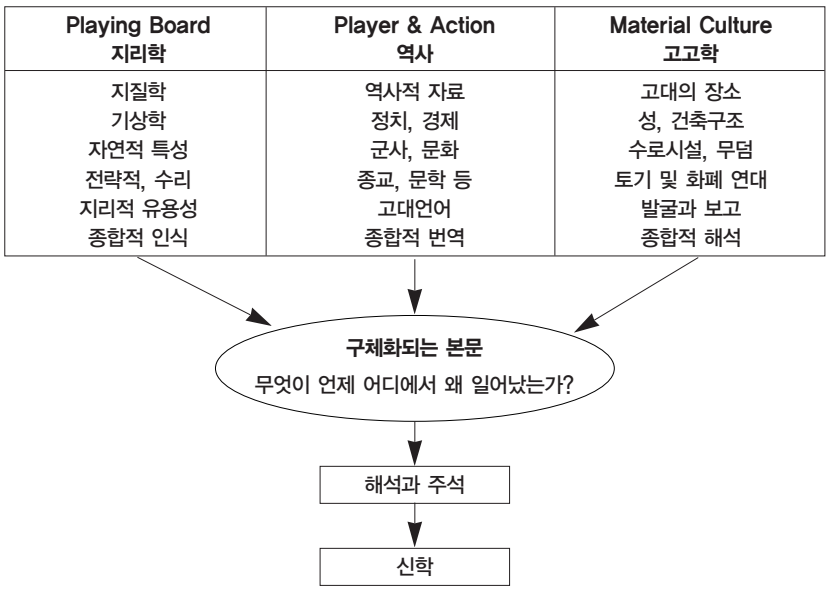
4. 숲속의 다양한 관목을 관찰하기

역사서 본문은 장소(Playing Board)와 사건(Player & Action) 그리고 유적(Material Culture)들을 갖는다. 이것을 다른 말로 본문의 장소를 지리로, 사건들을 역사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건의 유물은 고고학을 통하여 좀 더 신중하게 접근 할 수가 있다. 성경의 본문(text)을 이해하는 중요한 것이 본문의 배경(context)이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같은 연구가 중요하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성경 본문의 배경으로서 그 정황을 이해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성서의 사 회 레 ° 배경(social-cultural settings)은 크게 세 갈래로 나누어서 조사렛ΠΠ 할 때 본문을 구체화하게 되는데 그것은 지리(Physical settings), 역사(Historical settings), 고고학(Archeological settings)적 배경이다. 이렇게 하여 구체적인 정황적 해석을 낳을 때 본문은 구체화되는 본문이 된다.

성서에 가득 차 있는 지리적인 정보를 아래와 같은 도표를 통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분문을 바르게 이해하는 과정을 도식해 본다. 여기서 각 각의 지리와 역사 그리고 고고학은 인접한 여러 정보를 아래와 같은 영역에서 찾아 상황을 면밀히 살필 수 있게 된다. 고대의 지리학적인 용어들을 확실하게 규정한다는 것은 현재 사용 가능한 자료들을 가지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역사적인 연구에서 얻게 되는 노력을 기울이어야 한다. 오늘날 설교자들이 과거의 옛 자료들에 의거하지 않은 채로 자신의 상상력에 적합한 방식으로만 성서의 용어들을 적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구약역사서를 이해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서 본문상황이 안고 있는 장소와 역사 그리고 유물들은 본문의 실체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보다 더 상세한 상황적인 내용들을 얻기 위하여 역사적 측면에 해당되는 문서자료들을 찾아 저자가 의도했던 개관적인 상황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때 고문서학과 금석학 문법 등을 동원하여 고대자료들을 해석해 내는 것이다.

구약역사서 시대는 후기 청동기 시대(LBA 1400-1200BC)와 철기 II 시대(1000-586BC) 사이이다. 이 시기 이스라엘 사회에 관해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 자료가 성서와 고고학적 발굴결과이다. 먼저, 이 시기의 성서적 증거로는 주로 여호수아서와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 상권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지난 200여년에 걸친 고고학적인 연구는 과거 생활에 대한 다양한 실제적인 물품들을 제공해 주었다. 건물들과 옛 기물들은 고대 문화배경 속에 당시의 사건들을 해석해 주는 실마리가 된다. 이렇게 성경본문 정보와 함께 간(間)학문적 연구방법으로 고고학적 보고는 해당 시대에 존재했던 사회의 문화적 잔재를 산출해 놓는다. 그런 의미에서 고고학적 자료는 성서에 대하여 다양한 학문적 방법들로 인류학, 사회학, 민속학, 인종학 등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초기 이스라엘 사회에 관한 균형 잡힌 견해를 도출하는데 합당하다.

해석을 위한 도식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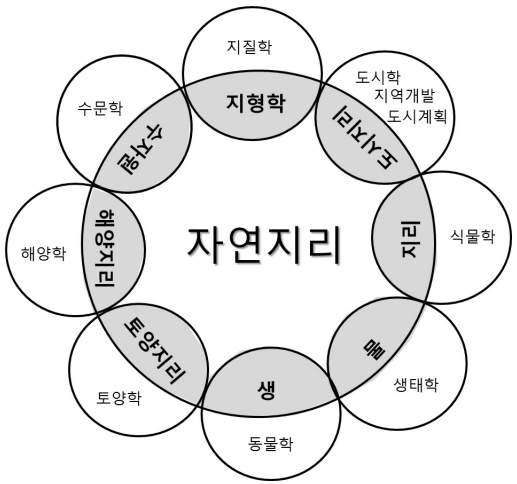


11 아래의 도식은 구체화 되는 본문의 해석을 위한 선 작업으로서 일차적 접근으로서 지리, 역사, 고고학의 충실한 상황적인 이해를 요하는 것이다.

5. 입체적으로 인식하기 위한 성서지리

지리적 배경의 연구는 그 첫째가 주로 자연 지리로서 성경에 언급된 지명에 대한 지형, 지질, 기후 등에 대한 많은 이해가 필요하다. 성서의 역사지리는 성서의 시작과 함께 언급된 사건들이다. 구약역사서를 이해하기 위하여 지리적 접근이란 지구 위에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 상호의 관계 등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는 지구 표면의 공간적 특성들이 지역에 따라 다르고 이에 따라 인간들의 살아가는 모습도 다르다는 개념을 포함한다. 이를 지리학에서 지역성이라고 한다. 철학자 칸트가 '역사학이 시간적으로 나타난 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라면 지리학은 공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 [12] 이라고 언급한 것은 바로 이러한 지리학의 체계와 영역을 잘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지리학에서는 위치, 장소, 지역, 자연과 인간의 상호관계, 이동 등 5가지 주제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자연지리에 접한 학문의 연계를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13]

자연지리학의 영역



12 재인용, 한국지리연구회, 『지리학강의』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0), 17.

13 동국대 지리교육과 안재섭교수의 강의 자료에서 발췌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위치라고 하는 것은 지구상에서의 절대적 혹은 상대적 위치로서, 지리적 사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특정한 위치를 언급할 때는 그 곳에 '무엇이' 존재하느냐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장소라고 하는데, 결국 지표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 장소의 집합체인 셈이다. 지구상에는 완전히 같은 두 장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지리적 사상의 '유일성' 이다. 서로 다른 장소들은 서로 연합되어 특정 지리적 사상에 대해 공통적인 특성을 갖게 되는데, 그러한 특성이 나타나는 범주를 지역이라고 한다. 지역은 결국 어떤 지리적 기준에 대해 등질지역이 되며, 이러한 등질성은 지역의 성격 즉 지역성으로서의 지역지리 연구의 중심과제가 된다. 지역의 특성은 보통 자연과 인간의 상호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지리학은 인간이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일반 자연과학과 차별화 된다.[14]

윗 도표를 따라 본문의 지역지리를 나누어 조사하며 그곳의 자연지리를 이해하며 실체를 많이 알수록 효과적이다. 지리학은 지표 위 인간이 더불어 사는 곳이 1차적 연구의 대상이 되는 곳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대의 지리적인 용어들을 규정하는 것이 현재의 자료를 가지고는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구에서도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또는 자신의 상상력으로 옛 자료에 의거하지 않는 다면 본문의 사실을 왜곡

의 자연적 기반을 형성하는 지형학, 기후의 지역적 분포와 인류의 관계를 연구하는 기후학, 이 외에 생물의 분포나 군락의 지역 구조를 연구하는 생물지리학이나 생태학, 생물로서의 인류 집단의 지역 구조를 구명하는 도시지리학 등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수문학(水文學)・토양지리학 등도 일부 포함된다.

14 장의선, "'전통 지리'의 지리 교육적 가치와 교육 내용 재구성 방안"「사회과교육」제45권 1호 (2006. 3); 97. 저자는 "오랜 역사 시기 동안 그 곳에 살았던 사람들과 자연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이러한 사실은 전통 지리의 지리 교육적 가치를 그 내용에 따라 민족 정체성 함양, 친환경적 사고 육성, 지리적 사고력 개발, 통일 교육의 밑거름 등 다양한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는 것이 뒷받침하고 있다"고 한다.

15 A. F. Rainey, "The Toponymy of Eretz Israel," *Bulletin of the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231 (Oct., 1978), 1-17.

시킬 수도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성경의 지리적인 본문들과 성경 시대 이후의 자료들 사이에는 일치 않은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할 것이다. 올바른 지리정보가 없이는 해당 본문의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자연적 특성과 전략적 용이함뿐만 아니라 지리적인 유용성과 수리적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물의 근원과 그 사용 수단을 통한 사회 문화의 단면을 살필 수가 있어야한다. 지리의 학문영역이 자연과학이듯이 모든 과학적 방법들이 적극 적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성경에 언급된 사건이 전개되는 주 무대는 공간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역사가 성경의 시간적 배경이 된다면 지리는 공간적인 배경이 된다. 따라서 설교자는 산, 강, 들, 농작물, 동물분포, 계절 그리고 기후에 대한 자료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기상학은 건기와 우기로 형성된 날씨 유형의 변화가 다양한 시기와 절기를 갖으며 이것은 생활방식에 영향력을 주기 때문이다. 자연적 특성과 지리적 유용성은 전략적이거나 수리학적 적합성을 고려하며 또 도시와 촌락의 구성적 요인들을 찾게 되는 것이다. 지리학 그 자체로서 어떤 연구 분야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도리어 다양한 연구 분야로부터 생겨난 자료들을 종합하는 작업을 가리킨다.[16]

고대 팔레스타인의 지리적이며 지정학적인 위치는 요단 강 서부에 위치한 강원도 크기보다 조금 클 정도의 지역을 다루고 있다. 그 지역은 기껏해야 남북 길이가 400km로 그러한 가운데 남부지역 절반은 광활한 광야이다. 넓이는 북쪽 동서의 길이는 48km에서 남쪽은 112km에 이른다. 이스라엘은 사실 아주 작은 나라일 뿐이다. 철기 시대에 있어서 전체 인구는 약 150,000명을 넘은 적이 없었다고 학자들은 본다. 거대 도시는 몇 되지 않았고 그것도 대략 3,000명

16 D. C. Hopkins, *The Highlands of Canaan: Agricultural Life in the Early Iron Israel* (Sheffield: Almond, 1985) 162.

정도의 인구밖에 수용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리고 평균적인 마을은 겨우 500-1,000명의 인구를 보유할 뿐이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거주지는 지방이었기에 인구밀도가 매우 낮았다. 솔로몬 시대의 예루살렘은 아마도 2,000명 정도 있었는데, 그것도 기원전 8세기에 최고점이었고, 평균적으로는 5,000명을 넘지 못했다.[17]

이스라엘은 그 크기는 이렇게 작을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적들의 공격에 취약했다. 이스라엘은 풍요한 초승달(Fertile Crescent) 지역 끝자락에 작은 해변을 따라가는 길고 좁은 지역으로,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라는 거대한 문명국 사이에 있었다. 항상 뒤처진 국가였다.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다리로서 이스라엘은 종종 유린당했고, 정복당했으며, 그리고 오랜 기간을 외세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지역이 완전한 통일을 이룩한 적이 없는 채 대략 주전 1,000-600년경 약한 왕국으로 있었다.

이 와 같은 약점에 더해서, 이스라엘은 교역을 하거나 재정적인 독립성을 보장하거나 혹은 번영을 가져다줄 수 있는 그 어떠한 천연 자원도 없었다. 그 땅의 지형은 매우 다양해서 사실 인간이 거주하기에는 대부분이 열악한 환경이었다. 남부의 사막은 관개수리 시설이 가능해졌을 아주 잠시 동안만을 제외한다면 거주가 불가능한 지역이다. 로마-나바티안 시대의 카라반의 숙소, 혹은 비잔틴 시대에 수도사의 거주지로, 광야의 피난처를 제공해 줄 수 있었을 뿐이다. 국토의 중부와 남부지방은 거대한 대비를 보여주는 땅이다. 동서를 잇는 몇 안 되는 자연 협곡을 제외하면 국토의 북남을 잇는 중앙의 산악을 따라서, 교통의 장벽이 되었다. 고지대는 계단식 농경과 수조 건설, 그리고 한 해

17 Mazar, "Giloh: An Early Israelite Settlement Site Near Jerusalem," *IEJ* 31(1981) 4; Coote and Whitelam, *The Emergence of Early Israel*, 122. 참조, William G. Dever, "Archaeological Data on the Israelite Settlement: A Review of Two Recent Works," *BASOR* 284 (1991) 86.

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한 저장 샘 덕분에 가능했다. 해안 평야는 고대로부터 거의가 말라리아가 발생하는 늪지대였다. 해안과 산악의 중간 구릉 지대인 쉐펠라는 기름지고 물 공급이 용이했지만, 대부분의 시대에 이스라엘인은 블레셋인들의 손 안에 있었다.

빈약하고, 메마르며, 돌투성이의 토양에 더해서, 가장 최적의 지역이라고 해도, 기상 조건이 물 문제를 발생케 했다. 요단을 제외한다면 강이 없었고, 그 요단강도 수심이 너무 깊은 나머지 물을 끌어다 쓸 수 없고 사해로 흘러갈 뿐이었다. 다른 곳에 몇 안 되는 샘물들이 있었을 뿐, 원시적인 기술로는 깊은 우물을 팔 수 없었다. 대부분의 지역은 전적으로 건식 농업에 집중했다. 그것은 다양한 강수량에 의존하게 되었는데, 남부사막에선 150mm 갈릴리 상부에서는 대략 1000mm 정도로 다양했다. 그러나 언제나 우기 철에만 집중되기 때문에 예기치 못하는 우기는 너무 부족하거나 너무 넘치거나 하였다. 오월에서부터 십 월에 이르는 긴 여름은 뜨겁고도 건조함으로 지속된다. 비는 겨울 몇 달에만 내리는데, 그 와중에 몇 년에 걸쳐 가뭄이 발생하며, 주요 농경지역에서의 농사는 흉작이 되고 만다. 마지막으로, 풍요로운 해를 맞이하더라도 곡물의 1/3은 저장 시설의 낙후로 잘 저장되지 못하고 손실이 되었다. 금이나 은, 값비싼 보석이거나 다른 천연 자원들은 거의 없었다. 산지에는 큰 나무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인들이 살던 시대에 와서는 이미 산림이 훼손된 상태였다. 그러한 과정은 구리와 같은 광물은 3,000년 전부터 남부 네게브 사막과 요단 계곡에서 광물을 녹이기 위해 숯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주석은, 구리와 함께 합금해서 청동을 만들기 위한 필수품으로, 아나톨리아 혹은 아프가니스탄까지 멀리 가야 얻을 수 있었다. 트랜스요르단에는 몇 개의 철 매장 장소가 있었지만, 철기를 이용하는 기술은 원시적이었고 역량 부족이었다.

이 같은 고대 팔레스타인의 빈약한 천연 자원 환경과 불안정한 지정학적 위

치, 의존할 수 없는 생존방식과 사회 구조, 그리고 정치적 불안 등을 통하여 드러난 사실은 고대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왜소했었다. 국토는 가난했고, 국력은 보잘 것 없었으며, 언제나 파국이 눈앞에 보였다. 고대 이스라엘이란 고대 근동 문화와 역사에 있어서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은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있었다.

6. 역사 지리로 해석하기 [18]

이는 역사적 배경으로서의 역사 지리를 말하는 것으로, 지리학과 역사학은 서로를 공유한다. 말하자면 역사학과 지리학은 모두 시간과 공간을 함께 연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리학은 인간과 자연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을 설명하고 해석하고 기술하여 남기는 학문이다. 지역은 공간, 장소, 위치, 영역 등을 통하여 다양하게 개념화된다. 지역은 그 자체의 특성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역사를 가지며 기록의 대상이 된다. 역사학의 경우 기록과 문헌이 연구의 근간이 된다면 상당 부분에서 지역, 장소, 위치, 영역 등이 기록과 문헌에 포함될 것이고, 때로는 그것이 역사 해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기록' 은 단순한 문장의 나열이 아니라 사실의 정확성, 존재의 유무 확인, 기록의 욕구를 가지는 집단의 정체성 등을 함께 밝히는 작업일 수도 있다. 역사의 위대함은 온 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고대사에서의 영토와 국경의 개념이나 그 정확한 지리적 경계 설정 방

---

18 구역역사서를 위하여 역사적 배경을 이해함이 없이 올바른 성경 연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것은 성서의 역사적 배경이 성경의 지물(地物)적 배경(physical settings)이나 사회 · 문화적 배경(social-cultural settings)과 함께 성경의 본문(text)과 그 본문에 언급된 성지를 이해하는 배경(context)의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도움은 아하로니의 글을 참고하라 Y. Aharoni, *The Land of the Bible: A Historical Geography*, trans. Raney. Anson (Philadelphia: Westminster, 1979), xiv.

법이나 인식 체계가 현재와는 달랐을 것임은 잘 알지만, 또한 당시의 지리적인 상황을 성서역사서에 기술함에 있어서 그 양도 방대하다. 그러나 구약역사서를 해석함에 있어서 역사적 배경 연구는 관련문헌에 남아 있는 역사적 사건이나 유물 또는 유적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지리의 역사적 내력을 조사한다.[19] 각 나라와 그 시대 사람들이 오랜 시간 속에서 경험된 사건자료를 찾아 원저자의 의도를 해석하는 것이다. 일차적 방법으로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종교 문학 등 고대의 기록들을 종합적으로 번역해 낸다.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이 그 사건 나름대로의 지리적 연관이 있다면 역시 모든 사건은 역사적 참고적 연관성을 갖게 된다. 이것은 모든 성경의 사건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생겨났다는 점에서다. 이 같이 지리학과 역사학의 교류와 협력은 역사지리 분야에서 가장 활발할 것이다. 지리학과 역사학은 공간과 시간을 통하여 기록하고 서술하는 공통성이 있다. 따라서 지리학은 지리정보, 입지론 등을 통하여 역사학에 기여를 한다. 고대 이스라엘사의 경우에는 당시 역사 현상의 공간과 장소들의 지리적인 조건이 지금과 많이 다르므로 정확한 지리적인 복원과 고증이 중요한 가운데 특히 지형, 기후, 식생 등을 포함하는 자연지리 연구와 자연지리 복원에 대한 연구가 고대사 연구와 고증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20]

따라서 성경 각 권의 문화 및 역사에 관련된 어떤 상호작용은 지리학과 역사학의 만남이 필연적이다. 이 사실은 고고학이 구약 이해를 돕기 위해 내 놓

---

19 Aharoni, *The Land of the Bible*, 105-106. 그는 또한 장소와 지역에 대한 기록과 지명 부여와 변천, 혹은 구전에서 과거 역사 시대의 지역이나 장소에 대한 정확한 위치와 그 자연적인 조건과 당시의 인문환경을 알고자하지만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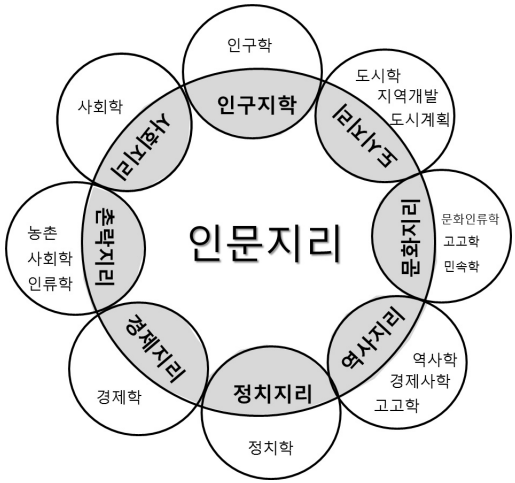
20 Kallai, Z. "EA 288 and Biblical Historiography,"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Cambridge, MA: November 1999): 17-20.

은 공헌 가운데에 아주 명백하게 드러난다. 사실 역사학과 지리학은 역사적 현상과 장소와 위치에 대한 기록과 서술, 그에 대한 해석과 분석 등의 학술 연구 등에서 모두 오래전부터 분리 된 것이 아니다. 지리학과 역사학의 연구 특성 자체를 보더라도 그러할 수가 없다고 한다. 특히 헤로도토스의 '역사' 는 많은 분량의 할애가, 지역과 국가와 자연 환경에 대한 지리적인 설명으로 서술함이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방대하게 담고 있다. 역사학자들은 지리학을 역사의 배경으로 여기는 경향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아마도 역사학이 공간을 바탕으로 하는 인간의 모든 활동과 사상과 관계들을 기록하는 학문이거나 기록이라면 지리학에 대한 고증이 역사적인 사실의 발견과 정확한 역사적 고증에 많은 도움이 된 것이다. 사실 지리학 뿐 아니라 모든 학문들에서 그 연구 성과가 시간이 지나면 역사자료로 편입이 되고 실상 그 모두가 역사학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지리학은 본질적으로 현재의 현실적 공간을 분석하고 기술하고 지도화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리학의 발전은 기록과 서술이 함께함으로 이들 내용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역사학의 좋은 자료가 되는 것이다.

흔히 지리학은 공간의 학문이고 역사학은 시간의 학문이라고 한다. 지리학은 공간과 관련하여 자연, 사회, 문화, 경제, 정치, 지역 모든 분야를 다루고 역사학은 시간과 관련하여 과거가 되어버린 모든 인문현상을 다 다룬다. 지리학과 역사학의 공통점은 공간과 시간을 공유하는, 기록의 학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지리학과 역사학은 서로를 공유한다. 말하자면 역사학과 지리학은 모두 시간과 공간을 함께 연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서지리학은 성서 시대의 인간과 자연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을 설명하고 해석하고 기술하여 남기는 학문이 될 수 있다. 성서의 무대로서 지역은 공간, 장소, 위치, 영역 등을 통하여 다양하게 개념화된다. 그러므로 지역은 그 자체의 특성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역사를 가지며 기록의 대상

이 된다.[21]

인문지리학의 영역[22]



반면 역사학의 경우는 기록과 문헌이 연구의 근간이 된다. 따라서 상당 부분에서 지역, 장소, 위치, 영역 등이 기록과 문헌에 포함될 것이고, 때로는 그것이 역사 해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기록'은 단순

21 역사지리학에 대한 지리학계의 연구 사례를 앤슨 레이니의 글을 적극 추천한다. Anson F. Rainey and R. Steven Notley, *The Sacred Bridge. The Carta Atlas of the Biblical World*. J(erusalem: Carta, the Israel Map and Publishing Company. 2006). 10; Y. Aharoni and M. Avi-Yonah, *The Macmillan Bible Atlas*. third edition by A. F. Rainey and Z. Safrai.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93. 이 두 권은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있다. Carta Atlas 장소와 지역에 대한 기록과 지명 부여와 변천, 혹은 구전에서 과거 역사시대의 지역이나 장소에 대한 정확한 위치와 그 자연적인 조건과 당시의 인문환경을 추적하여 재구성하려는 최신작이다.

22 인문지리학은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자연법칙과 모든 생물 간의 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인간을 환경과의 관계에서 고찰하고, 인간을 지리적 인자로 본 블라쉬는 환경학과 생태학의 길을 여는데 중요한 단서를 마련해주었다. 인문지리학은 취급분야에 따라서 경제지리학 · 인구지리학 · 취락지리학 · 문화지리학 · 정치지리학 · 역사지리학 등으로 나눈다.

한 문장의 나열이 아니라 사실의 정확성, 존재의 유무 확인, 기록의 욕구를 가지는 집단의 정체성 등을 함께 밝히는 작업이다. 따라서 고대의 군사, 문화, 종교, 문학, 고대 언어 비문 등을 종합적 번역 연구하면서 문명의 발달, 기술의 발달로 성경시대를 그래픽 등으로 재현해 놓고 있다. 이렇게 특정 시대에 대한 보다 정확한 역사와 지리를 앞으로 더욱 더 복원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7. 해석에 있어서 일차적 자료로서 고고학

고고학 배경 연구는 성경이나 관련 기록 및 고고학 유물로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이나 사회상, 그리고 문화를 조사한다. 성경에 있는 문화적 요소를 연구하는 주된 목적은 해석자로 하여금 성경에서 가리키고 있는 원래의 사건이 무엇인가를 아는데 도움을 주자는 것이다. 환언하면, 문화를 연구함으로서 우리는 말의 고유한 의미를 얻게 되며 따라서 한 단어, 한 귀절 한 습관의 원래적 문자적 사회적 정의의 뜻을 파악하게 된다. 이처럼 다각적인 본문연구는 성경의 배경이 본문을 태동케 하는 원인관계를 이해하게 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고고학은 물질문화에 대한 과학" 으로, 사물에서부터 역사를 기록하는 한 방식이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고고학은 과거를 조망하는데 있어 명백히 본문에 필적한 방법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그것의 목표는 가능한 한 그 세대의 언어로 과거를 이해하는 것으로 고고학이 본문에 대해서 어떠한 개선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동등하거나 혹은 심지어 더욱 우세한 정보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관심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고고학의 성격, 방법, 목적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에 대한 이해를 넓힐 때 우리는 본문에 대한 더 깊은 가치를 알게 된다.

고고학적인 자료들은 이미 모든 성경 본문들을 합쳐 놓은 것보다 훨씬 더 많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것이다. 정경적인 성경 본문은 닫힌

책으로 멈춰진 시간이며, 거기에는 더 이상의 첨가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고고학은 역동적으로 날마다 새로운 발굴로 인해서 혁신적인 일들이 가능하며, 개방적이며 이론적으로 그 가능성에 있어서만큼은 열려 있다. 그러다 보니 최근 고고학자들이 너무도 자신의 철학적이고 역사적인 연구에 매여 객관적인 것을 놓치고 만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또는 지나친 객관성에 대한 신뢰가 학문분야에 있어서 지나치게 과신하고 있으며, 일종의 극단적 객관주의라는 것이다.[23] 고고학적인 자료는 성경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전형적인 자료 종류들보다 더 다양한 형식을 가지고 있다. 구약성경의 많은 장르에도 불구하고, 모든 본문 자료들은 의도적인 선별된 집대성이었다. 그러나 고고학적인 다양한 자료들은 고고학적 기록에 대한 형성 과정을 제외하고는 그것을 보존시켰던 인간적이거나 자연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선택되지 않았다. 그리고 인공유물들은 히브리 성경에 있을 법한 모든 삶의 현장과 사람들의 활동 영역 전반에서부터 출토된다. 그들은 사회의 모든 계층이라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모든 직업, 그리고 특별히 여성들로, 본문에서는 자주 언급되지 않은 사람들이다. 본문은 특별한 이익집단을 반영하고 있다면, 인공유물은 통속적인 문화를 반영한다.[24]

고고학이 역사를 기록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역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하겠다. 일반적인 정의 중에 하나는 독일 역사가인 요한 호이징가(Johan Huizinga)의 것이다. "역사란 어떠한 문명

---

23 성서고고학의 방법론적인 폭넓은 견해는 다음 책을 참고하라. Ziony Zevit, *The Religions of Ancient Israel: A Synthesis of Parallactic Approaches* (London and New York: Continuum, 2001), 15-16, 87.

24 성경에 있는 문화적 요소를 연구하는 주된 목적은 해석자로 하여금 성경에서 가리키고 있는 원래의 사건이 무엇인가를 아는데 도움을 주자는 것이다. 환언하면, 문화를 연구함으로서 우리는 말의 고유한 의미를 얻게 되며, 따라서 한 단어, 한 귀절 한 습관의 원래적 문자적 사회적 정의의 뜻을 파악하게 된다.

이 과거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지적인 형태이다"[25] 그러나 이것은 역사가 객관적인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 자신의 주관적인 필요에 관한 것이라는 암시를 준다. 따라서 대부분의 고고학자들의 역사란 시험적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특정 지역에 반영되고 있는 물질문화를 조명하면서 그 지역의 연대기적인 발전 과정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에서 유물들에 대한 문화적인 분석과 해당 유적지의 구도를 반영하여 사회적 이해를 도모하게 한다. 레이니는 "고고학은 정사각형 구멍을 파헤치는 과학이요, 그곳으로부터 실을 짜내는 기술이다"라고 고고학을 정의 내렸다.[26]

고고학은 발굴한 고대의 장소, 성 건축구조, 수로시설, 무덤, 토기 및 화폐연대 등 보고를 통하여 종합적 해석을 한다. 정착의 유형으로 요새화된 성읍, 마을, 동굴, 무덤들과 야영지를 발굴한다. 또 특정지역의 정착여부 및 사람이 살지 않은 지역과 사람들이 사는 지역 확인과 함께 정착지들 간의 생태학적 관계로서 수원지, 농업의 가능 여부, 농업의 가능성, 방위 수단, 커뮤니케이션 가능 여부 가늠함. 유물 분석 및 유기물 분석 등으로 인접된 학문을 도표로 그리면 아래와 같다. 고고학은 고대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역사를 만들어주는데, 이는 좀 더 실제적이고, 포괄적이며, 보다 더 균형을 맞추어 궁극적으로는 보다 더 당대의 사회-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만큼 확실한 증거가 되고 있다.

---

25 Marc Brettler and Michael Fishbane eds. Min ah le-Na um: Biblical and Other Studies Presented to Nahum M. Sarna in Honour of His 70th Birthday.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Supplement Series 154. Sheffield: *JSOT* Press, 1993. 337. '문명'이라는 의미는 하나의 부족 또는 종족 또는 국민의 그것을 수단으로 그것을 통해서 생존을 유지하고 있는 총괄적인 양상, 곧 생활 방식, 예절, 도구, 습관, 건물, 제도 등등이다. 사람이 무엇을 기록하든 간에 그들이 기록하는 것은 다만 그들의 문화적 배경에서 기록한다.

26 Rainey, A. F, "Stones for Bread, Archaeology versus History," *Near Eastern Archaeology* 64:3 (2001), 44-53.

지난 세기는 다양한 유적지들에서 이루어졌던 고고학적인 발굴에서 어떤 경우에, 물질유물과 기록된 유물들 사이의 비교는 역사의 재구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역사가의 보도가 고대 근동의 금석학적 자료나 고고학에서 이끌어낸 정보와 일치되는 정도를 가능한 한 확정하려는 시도라고 하겠다. 또한 고고학과 금석학에 의지하는 것 또한 나름대로의 문제와 한계가 있음을 잘 인지하고 있다. 성서의 주장을 물질적인 증거와 비교하는 일은 단순한 문제만은 아니다. 고대의 물질유물 그 자체로는 해석을 말하지 않는다. 따라서 고고학자들이 자신들의 가설과 방법론에 있어서도 서로 다르다. 다시 말하자면, 많은 유적지들 가운데 어떤 곳들은 지명에 있어서 논쟁 중에 있기도 하다. 그리고 발굴된 유적지를 다룸에 있어서, 고고학자들은 자신들의 방법을 서로 다르게 접근할 수 있으며, 지층의 연대와 발견된 유물의 해석에 있어서도 역시 서로 다르다. 문제를 보다 복잡하게 하는 것으로, 고고학적 발굴은 이스라엘 혹은 유다 역사에서 보다 뚜렷한 기간을 나타내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발굴을 통해서 얻어낸 도자기 군집들이 특정한 세대의 연대를 설정하는 정교한 기술은 여전히 미완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고로, 고대 팔레스타인에서 출토된 물질유물 그 자체로 해당 되는 것들에 관한 성서주석을 정확히 만들어줄 것이라는 것이 그리 간단하게 여길 수 없다.[27] 이러한 한계들에도 불구하고, 고고학과 금석학의 사용은 상당부분 빛을 비춰주고 있어, 어떻게 성서의 역사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성서만의 독특한 주장이 역사적 현실에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가를 재구성하는데 있어서 간접적인 수단으로써 중요하다.

---

27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데버(Dever)의 비평적 글들을 참조하라. Dever, William G. *What did the biblical writers know and when did they know it?* (Grand Rapids : Eerdmans, 2001), xiii. *Did God Have a Wife? Archaeology and Folk Religion in Ancient Israel* (Cambridge: Eerdmans, 2008), 157.

나가는 말

이와 관련하여, 역사서 본문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준비 되어야 하는 1차 작업으로서의 지리, 역사, 고고학이 결코 소극적으로 다루어지거나 혹은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종합적인 노력이 설교주석가들에게 구약역사서를 훨씬 더 그 시대에 가까운 역사로 이해하는 통찰력을 제공해준다. 본문이 어떻게 한 사건의 기록을 취급하고 있는가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저자는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자신의 상황 속에서 드러내고 있다. 성서의 본문들은 절대로 진공 안에서 행해지지 않았으며, 언제나 주위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았다. 설교자들도 늘 구약역사서에서 이러한 지리적인 분야를 찾아내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 이 같은 연구에서 서로 보완할 여지도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이룰 수 있는 것은 각각의 역사서에 대한 보다 정확한 해석을 복원하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지리, 역사, 고고학은 함께 할 여지가 많은 것이다.

역사서를 접근 할 때 설교자들은 다양한 문제들을 인지 할 필요가 있다. 지리가 갖은 공간과 관련하여 자연, 사회, 문화, 경제, 정치, 지역 모든 분야에 열린 사고이다. 또 역사에서는 시간과 관련하여 과거가 되어버린 모든 인문현상을 인식하고 접해야한다. 아울러 고고학은 과거 인류들이 남긴 물질적인 자료와 그 상관관계를 통해 당시 문화 즉, 행위, 사회적 조건, 이념 등을 복원하고 그들 문화와 역사가 어떻게 그리고 왜 변화되었는가를 종합 하는 능력이 갖추어져야한다. 따라서 본문이 안고 있는 양 학문의 복합적 인식을 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설교자들이 고대 팔레스타인 지리, 역사, 고고학에 대하여 보다 균형이 잡힌 연구와 고증이 설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에서 보는 것과 같이 본문이 안고 있는 지식에 대한 전 이해를 논하는

이유는 성서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가 되어야 해석이 가능케 되는 것이며, 이것이 곧 설교가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구체화된 본문의 해석이 주석을 낳으며 여기에서 우리는 주제로서의 신학을 빗어내게 되는 것이다. 실제적인 역사지리를 통한 설교의 사례는 다음 기회로 연기해보며 이에 대한 많은 후속 연구들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Abstract〉

Preaching the Historical Books

Eun-Ho Kim

Prof. of Korean Bible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ocuses on how to prepare for sermons on the historical books in the Old Testament rather than focusing on how to preach about the same books. For the very purpose, I would like to provide better understanding on the historical books of the Old Testament. The main purpose of sermons is to proclaim the word of God to change lives. Therefore, the preachers, first, must acquire the full knowledge of the text before getting thee techniques which will help them preaching the text more efficiently. Each of the historical books is written with the specific background to tell a specific message. Thus, it is impossible to fully grasp the text without understanding the time and the setting. People including preachers should find deeper meanings - hoth implicit and explicit - within writings of the events and situations in the historical books. This bok considers various events that happen in Deuteronomic and the Chronicles the history as the two different perspectives on understanding the history of the Old Testament.

Recorded in the history of the forest, the extensive experience of the event refers to the experiences of people who lived in the land. Relative geographical background and information can be found throughout the text. However, without the geographical knowledge of the time and the settings, the theme and the message become weak and blurry for the readers. It is because these historical books of the Old Testament include social, historical and spiritual experiences of the people of the time, which come from their geographical aspects. As the biblical history requires the understanding of geography as the backgrounds, history as the events and archeology as the artifacts, this article put its focus on providing the necessary knowledge.

〈참고문헌〉

김의원.「사사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_____. "부족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그말씀」10 (2005):

김지찬. "역사서를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그말씀」4 (1997): 40-41.

_____. "내러티브와 구약학: 자서전적 내러티브",「말씀목회 내러티브 학술회의자료집」2005.

_____.「요단강에서 바벨론 물가까지」.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9.

김창훈. "구약의 역사서(역사적 본문, 히브리 내러티브), 어떻게 설교 할 것인가?"「복음과 실천신학」제20권(2009).

왕대일.「새로운 구약주석」. 서울: 성경연구사, 1996.

장일선. "역대기 사가의 신학적 경향."「신학사상」제25집 (1979): 301~325.

최종진. "역대기 저자의 신학."「구약논단」제27집 (2008).

Ackroyd, P. R. "The Historical Literature." In *The Hebrew Bible and Its Modern Interpreters*, ed. D. A. Knight and G. M. Tucker, Atlanta: Scholars Press, 1985.

Aharoni, Y. and M. Avi-Yonah. *The Macmillan Bible Atlas*. Completely revised third edition by A. F. Rainey and Z. Safrai.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93.

Brettler, Marc and Michael Fishbane. eds. *Minhah le-Nahum: Biblical and Other Studies Presented to Nahum M. Sarna in Honour of His 70th Birthday*.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Supplement Series 154. Sheffield: JSOT Press, 1993.

Childs, Brevard.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as Scripture*. Philadelphia: Fortress, 1979.

Coggins, R. "What does 'Deuteronomistic' mean ?" In *Words Remembered, Texts Renewed : Essays in Honor of J. F. A. Sawyer*, JSOT Supplement Series 195, Sheffield: JSOT Press, 1995.

Dever, William G. *Did God Have A Wife? Archaeology And Folk Religion In Ancient Israel*.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5.

Fee, Gorden, and Douglas Stuart. *How to Read the Bible for All Its Worth: a Guide to Understanding the Bible*. Grand Rapids: Zondervan, 1993.

Fretheim, T. E. *Deuteronomic History*. Nashville: Abingdon Press, 1983.

Greidanus, Sidney. *Preaching Christ from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 1999.

Harrison, R. K.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1969.

Longman, Tremper III. *Literary Approaches to Biblical Interpretation*. 유은식 역.「문학적

성경해석」. 서울: 솔로몬, 2002.

Mathewson, Steven D. *The Art of Preaching Old Testament Narrative*. 이승진 옮김.「청중을 사로잡는 구약의 내러티브 설교」. 서울: CLC, 2004.

Myers, Jacob M. *I Chronicles*. Anchor Bible Series. Garden City: Doubleday and Co., 1965.

Noth, Martin. *The Deuteronomistic History*. Sheffield: JSOT Press, 1991.

Prat, Richards L. Jr. *He Gave Us Stories: The Bible Student's Guide to Interpreting Old Testament Narratives*. 이승진 공역「구약의 내러티브 해석」. 서울: CLC, 2007.

Perkins, W. *The Art of Prrophesying & The Calling of Ministry*. 채천석 역.「설교의 소명과 목사의 소명」.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6.

Rainey, A. F. "The Toponymy of Eretz Israel." *Bulletin of the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231 (Oct. 1978): 1-17.

_____. "Stones for Bread, Archaeology versus History." *Near Eastern Archaeology* 64:3 (2001): 44-53.

Rainey, Anson F. and R. Steven Notley. *The Sacred Bridge. The Carta Atlas of the Biblical World*. Jerusalem: Carta, the Israel Map and Publishing Company, 2006.

Soggin, J. Alberto. *Joshua*. OTL vol. 6. London: SCM Press, 1982.

Weinfeld, M. *Deuternomy and the Deuteronomistic School*. Oxord: Clarendon, 1972.